

The Key I.

하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의 구체적 갈망 '침노함'

1. '인간'

인간됨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는 인간의 '행동, 행위'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행동은 사람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여지도록 나타남으로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행동'이다. 겸손은 보이지 않는 가치이다. 겸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겸손의 태도와 행동이 그 사람의 겸손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된다. 사랑, 열정, 온유, 긍휼 등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릇이 바로 행동이다.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인간'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게 한 것이 인간이다.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 되었다.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치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놀랍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특징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추상적이고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가 아님을 알 수 있게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실제적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보여지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육신'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예수 이상을 보았다. 바로 '사랑'을 보았다. 보이지 않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2. 열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 형상의 적극적인 해석은, 인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열쇠는 무엇인가? 닫힌 곳을 열게 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볼 수 있게 하는 열쇠가 있다. 예를들어 '회개'는 그와 같은 열쇠이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명확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은 '회개'로 말씀 하셨다.

[마태복음 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귀의 광야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첫 선포는 '천국'이셨다. 첫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셨다. 진리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 진리는 '선포적'이다. 토론하고 의논해서 진리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절대가치이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다. 증명과 설명은 그 선포 다음의 문제인 것이다.(이해하기 위한 도움의 문제이다. 증명 자체가 진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이 땅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유일하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소원이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말씀(구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선포는 '천국'이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한다고 확언하시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성취이며 응답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가? '회개'이다. 회개는 보이지 않는 가치이다. 만질 수도 없다. 마음에 관한 것이다. 그 마음이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행동의 주체자가 바로 '인간'이다. 회개란 무엇인가? 돌이키는 것이다. 단순히 방향전환의 돌이킴이 아니다. 옛 생활에 대한 '단절'을 의미하며, 변화된 삶을 향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다.

회개의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천국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달라진 구체적인 세상이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며 경험하는 '천국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형상'의 구체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말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 주체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라는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보여주셨다.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천국의 능력을 통해 풀어주셨다. 가난, 질병, 죄, 상처 등 인간의 삶을 지옥처럼 느끼게 했던 문제들을 천국의 열쇠를 통해 풀어주셨다.

3. 천국의 열쇠

[마태복음 16:18-19]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시다.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땅에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땅이 먼저이다) 무슨 말인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주체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히 네가 지옥에서 천국 갈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열쇠'를 주신 것이고,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임받은 존재이다.

4.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존재

시시각각 변하는 땅 위에서 인간은 살아간다. 문제도 다양하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라. 같은 문제, 같은 사람이 없었다. 모든 문제를 다양하게 경험하셨다. 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열쇠'의 핵심포인트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의 문을 열게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배고픈 자들을 보면 예수님은 '궁핍'의 마음을 가지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 마음이 오천명을 먹이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열리는 열쇠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문을 여는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만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예수님의 사역가운데 기적이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자를 향한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받는 자를 향한 하늘의 뜻으로 비추어졌고, 그 마음이 바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의 열쇠가 되었다.

5. '침노함' -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의 구체적 갈망!

[마태복음 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마태복음 11:14-15]

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2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3절을 보면 된다. 구약의 말씀을 설명한 것이다. 요한까지라는 말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다. 요한을 통해서 말라기 말씀이 예언되었다. (말라기 4:6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릴 사람)

요한을 마지막으로 말씀에 예언된 메시야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침노함의 배경은 이와 같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주체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함축한 단어가 바로 '침노함'이다.

(1) 영적원리

성경은 하늘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침노함'에 있다. 침노함이란,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 때를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주님의 기도를 명심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인간이 구하는 침노함의 '내용과 상태, 질'에 대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침노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을 말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한 양식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었다. 인간은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전'이라는 그릇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비추어지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비전의 그릇을 찾으신다.

(2) 비전의 그릇 - '침노함'

침노함이란,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의 구체적 갈망이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기업이, 내 가정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침노함이다. 하늘의 능력(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권세이다.

(3) 하나님의 뜻 - '선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 그 뜻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끄는 '복음'이다. 그렇다면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선교와 구제이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았나? 망하는 것을 보았는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는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비추셨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비전이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행동을 간단히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늘의 능력 또한 간단히 해석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 비전을 '사명'으로 취했기 때문이다.

(4) 하늘이 돕는 자 -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비전을 품는 자이다. 그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 5년 후의 결과를 보라. 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가를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왔는가를 보라. 하늘의 도움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 보라. 그 사람은 하늘의 뜻을 품고 사명으로 달려간 사람이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하늘은 그 사람을 돕는다.

명심하라. "하늘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침노함이며, 그 침노함은 하늘의 뜻을 아는 비전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 지리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드리라. 그 언약을 붙잡는 마음이며 비전이다. 하늘의 비전을 소명으로 붙잡으라.